

##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한상길\*\*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찰령과 불국사의 사격
  - 1. 사찰령의 시행과 모순
  - 2. 불국사의 본산 지정 운동
- III. 가람의 중건과 본산시대
  - 1. 본산시대의 개막과 사격 회복
  - 2. 가람의 중건과 복원
  - 3. 수행도량의 수립과 월산선사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일, 월산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137-173.

## 한글요약

불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창건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근대 이후 불국사의 역사와 사격이 주제이다. 1910년 주권을 상실한 시기부터 1970년대 가람의 복원과 중창, 그리고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수행자들의 노력과 역사를 살펴보았다. 불국사는 호국 사찰의 사격을 지니고 출발하여 고려, 조선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시대에 따라 화엄종과 유가종 등 소속 종단은 변하였지만 창건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역불의 기조에서도 호국사찰로서의 사격이 중시되어 중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사세가 기울고 가람이 퇴락하면서 절의 사격은 희미해졌다. 근현대 들어 일제의 사찰령하에서 30본산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절의 쇠락이었다. 20세기 초 절은 황폐한 무주공산의 지경이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사격은 무너진 가람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본산 기림사 체제에서 수반말사(首班末寺)도 아닌 일반 말사로 편제되었다.

불국사가 사격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때는 1938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본산 기림사와 지역인사들이 힘을 모아 본산승격 청원을 개시하였다. 1936년 거액의 국고가 지원되어 가람을 중수하였고, 석존제를 거행하는 등 활발한 사회적, 불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관광지로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가람의 중수와 범회활동을 통한 자신감으로 본산승격을 청원하였다. 1959년 불교정화의 과정에서 비구측은 24개의 수사찰을 확보하였다. 이때 불국사는 수사찰이 되어 비로소 경북을 대표하는 사찰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1교구 본산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후 1969~1973년에 이르는 4년간의 대복원불사를 완성하여 발전의 터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토대를 바탕으로 강원과 선원을 설립하여 도제양성과 수행도량으로서의 본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 주제어

불국사, 기림사, 30본산, 본산제도, 월산선사, 박정희대통령, 사찰령, 불국사 사리탑

## I. 머리말

불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창건배경과 과정에 관한 불교학·역사학의 연구, 두 번째, 석탑과 불상에 관한 미술사학의 연구, 그리고 세 번째로 석가탑 출토 유물에 관한 서지학의 연구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연구의 대상과 시기가 모두 창건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대성의 창건 이야기,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신라석탑,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은 불국사만이 지닌 위대한 정보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불국사에 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이 창건기에 집중되었다.<sup>1)</sup>

사찰은 출가자가 수행 정진하고 교학을 탐마하며 전법과 의식을 행하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종합도량이다. 창건과정과 가람, 석탑과 불상에만 주목하면 그 속에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수행자들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어려운 시대를 헤쳐 왔던 수행자들이 있었기에 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절이 있고, 석탑과 불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근대 이후 불국사의 역사와 사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910년 주권을 상실한 시기부터 1970년대 가람의 복원과 중창, 그리고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수행자들의 노력과 그 역사를 살펴본다. 사찰령의 제정으로 불국사는 본산 기림사의 말사가 되었다. 경상북도의 대표적 사찰이 왜 본산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말사로 편제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승격운동을 소개한다. 불국사의 본산승격 운동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 이어 정화운동의 과정에서 수사찰이 되었다가 대한불교조계종의 본산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격의 변천과 의미를 살펴본다.

1) 불국사에 관한 연구성과는 염중섭(자현),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동국대 박사논문, 2009)에 잘 기술되어 있다.

## II. 사찰령과 불국사의 사격

### 1. 사찰령의 시행과 모순

1911년 6월 사찰령이 제정되었다.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지배하는 기본 법령으로 이후 1945년까지 사찰과 승려, 불교단체 등 불교의 전반을 장악하는 식민지통치의 기준이 되었다. 총독부는 종교를 규제하는 것이 한국의 통치에 무엇보다 선결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종교는 식민 정부에 대한 저항의식의 온상이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즉 종교와 종단의 존재는 일본의 제국주의 이념 이외의 가치관에 의하여 국민들이 사고하고 판단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sup>3)</sup> 그러므로 종교를 규제하는 것이 원활한 식민통치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사찰령은 불교에 관한 법령이면서도 그 명칭을 ‘불교법령’이나 ‘불교관리법’이 아니라 ‘사찰의 법령’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일본의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 즉 종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식민지통치 대상으로서의 사찰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사찰령은 전문 7조와 시행규칙 8조로 구성되었다. 전문 제1조에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불교 법령을 대표하는 첫 번째 조항이 이처럼 사찰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즉 사찰을 장악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에 “본산 주지는 총독, 말사 주지는 도장관(道場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인 주지의 임명권을 총독부가 장악함으로써 한국불교를 재단(裁斷)하는 법적 근거를 수립하였다.

사찰령은 이처럼 한국불교에 관한 기본법령이면서도 ‘사찰’이라는 유형의 단위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사찰은 수행과 의식, 포교 등 한국

2) 한상길, 「한국 근대불교의 형성과 일본, 일본불교」, 『한국사상과 문화』 46,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09, pp.24-26.

3)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모시는사람들, 2007, p.43.

불교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중심체임은 분명하나, 총독부가 규정하는 사찰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전답과 경제력을 지닌 ‘재산’으로서의 가치만을 중시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권을 제한하고, 사찰의 ‘관리인’으로서 주지 임명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주지 임명 실태를 신상완(申尙玩)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倭總督은 佛敎를 拘束 利用코자 ㅎ야 寺刹을 布ㅎ지라 故로 僧侶 등은 面從腹背로 不得已 此法律에 依ㅎ야 寺刹政治를 行ㅎ았느니 故로 大本山 住持를 選ㅎ야도 總督의 認可를 得치 아니ㅎ면 不可境遇에 在ㅎ지라. 僧侶 등은 僧侶 德行이 圓滿ㅎ 高僧을 選舉ㅎ야 總督의게 認可를 求ㅎ면 總督은 當選된 人物을 秘密히 地方官廳으로 調査ㅎ야 若其人物이 新進의 思想을 抱ㅎ았던지 或은 將來의 社會를 向上케 嚮한ㅎ 事業을 建設ㅎ 者이던지 古來의 歷史를 通曉ㅎ며 祖國의 熱이 堅固ㅎ 者이면 危險人物 즉 排日家라 稱託ㅎ고 認可願을 却下ㅎ며 更選을 命ㅎ야 沒常識ㅎ 愚僧으로 住持됨이 常例이라 故로 僧侶 등은 本山住持의 選舉는 官涉的이오 非宗教的이라 ㅎ야 非法選舉로 看做ㅎ고 宗派의 眞正ㅎ 代表로 認치 아니할뿐 아니라 總督의 傀儡로 認할뿐이며 排日의 惡感은 千有寺刹에 充滿ㅎ았도다.<sup>5)</sup>

사찰령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에 한국불교를 부응시키기 위해 만들면서 수많은 폐해를 야기했다. 그 대표적 규정이 바로 30본산의 제정이었다.<sup>6)</sup> 30개의 본산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 일찍부터 30본산 지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본산 지정은 교파나 지리,

4) 사찰령 시행규칙 제7조에서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주지는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사찰에 소속된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범종·經卷·佛器·佛具 및 기타 귀중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5) 申尙玩, 「日本이 韓國佛敎에 對ㅎ 壓迫」, 『韓國獨立運動史 資料4 臨政篇 IV』, 국사편찬위원회, 1974, pp.129-130.

6) 30본산은 다음과 같다. 용주사·전등사·봉은사·법주사·마곡사·동화사·김룡사·고운사·은혜사·기림사·범어사·통도사·해인사·위봉사·보석사·선암사·송광사·건봉사·월정사·유점사·성불사·패엽사·법흥사·영명사·보현사·석왕사·대흥사·백양사·봉선사·귀주사 등이다.

행정지리, 사격, 재산, 승려 수 등 그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몰 근거, 무조리(無條理)하게 성립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7)</sup> 사찰령의 본산제도에 대한 모순과 폐단에 대한 비판은 193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 가운데 다음에 인용하는 글이 가장 명쾌하고 명료하다.

朝鮮에는 元來로 本末이라는 階級的 稱號가 업섯다. 高麗時代에는 九山門이 모다 下山所가 잇서서 그 門徒의 잇는 寺刹을 指揮하엿스니 下山所는 只今 本山一體라 할지라도 下山所 外에는 只今 末寺가튼 名稱이 업섯스며 李朝初에 各宗을 併合하여 禪敎兩宗을 만들고 興天寺로 禪宗都會所, 興德寺로 敎宗都會所를 삼앗스니 都會所는 只今 本山과 同樣이라 할지라도 都會所 以外에는 只今 末寺가튼 區分이 잇슴을 듯지 못하엿스며 近古에는 各道 又は 各邑에 首寺라는 것이 잇섯스니 首寺는 只今 本山과 一般이라 할지라도 首寺 以外에는 只今 末寺가튼 名字를 보지 못하엿거늘 이것은 日韓合 併後에 突然히 日本佛敎式을 取하여 朝鮮에 適用하게 됴므로 自古로 업든 本산을 새로 만들고 本산에 編入되지 못한 寺刹은 自然히 末寺가 되엿도다. 그러나 그 名字의 古文無 今文有를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本寺이니 末寺이니 하는 名稱이야 무엇을 準用하며 模倣하엿든지 그 關係를 한번말하고저 한다 本山이라 하면 勿論 그 本산의 開山祖가 잇고 그로 宗祖를 삼아서 門徒가 繁衍하거던 그 門徒가 轉輾히 弘法하기 爲하여 他處에 寺院을 建立하여야 於是乎에 宗支가 分明하여 本末이 形成하나니 그럼으로 그 範圍가 遠近도 업스며 區域도 업서서 어데라도 그 門徒의 靛立에 係한 것은 末寺가 되거늘 而今에 朝鮮本末은 何를 據함인가를 可히 揣摩치 못하겟도다. …(중략)… 今에 本末區域을 觀할지라도 그것은 歷史上 關係를 取한 系統的도 아니오, 行政上 便宜를 取한 地方制도 아니로다.

이러함에 不拘하고 或은 靛建年代의 久遠한 者가 反히 近古新靛의 下에 末寺가 되며 或은 歷史 不明의 寺刹이 歷史 赫赫한 寺刹의 上에 居하여 本寺가 되며 或은 地醜德齊한 地位로 本末이 懸殊하게 되니 그 本末로 하야곰 和氣融融하게 平靜安穩코자 한들 엇지 可得할 바이랴.

華嚴寺의 本山運動 卽 末寺脫籍連動에 對하여 各本산의 觀測으로는 萬一 華嚴寺가 跋扈하게되던 그 뒤를 繼續하여 第二 華嚴 第三 華嚴이 接踵而

7) 李英宰, 「朝鮮佛敎革新論」, 『조선일보』 1922. 12. 11.

起하여 各本山에 寧日이 殆無하리라 한 바이지마는 事實로 華嚴寺는 末寺 脫籍을 高調한 者이오. 其餘는 아즉 忍默不言하는 無數한 華嚴寺가 四方에 散在하도다.

記者는 數多한 不平이 잇는 末寺로 하야곰 蹶起하여 末寺 脫籍運動을 하라는 勸告 又は 煽動의으로 發한 言辭가 아니라 朝鮮寺刹의 本末制度가 上述함과 가치 根本의으로 錯誤된 것이 恒常胸中에 痞滿하야 呑吐에 俱不能하든 바이엇더니 忽然히 華嚴寺의 問題가 解決됨을 因하야 胸膈이 多少間 解鬱됨으로 久默하였든 一言을 吐露하고 兼하야 朝鮮佛敎 當局者의 寺法 改整에 急急 着手하야 許多한 不平不滿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를 바라노라.<sup>8)</sup>

우리 불교에는 원래 본말의 계급적 칭호가 없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구산문의 하산소, 조선시대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 그리고 최근의 수사(首寺)와 태고사가 지금의 본산과 흡사한 개념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본산이 되지 못한 모든 사찰을 말사로 편제하는 억지는 없었다고 하였다. 역사적 계통성이나 행정상의 제도가 아닌 무작위 지정의 결과 본말이 착오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화엄사뿐만 아니라 본산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찰이 전국에 산재하다는 지적이다.

30본산 체제에서 본산이 되지 못한 사찰의 본산 신청이 이어졌다. 1911년 지리산 쌍계사와 대원사 등이 해인사 말사 편입에 불복하여 본산 승격을 요청하였고, 여수 흥국사 등의 9개 사찰도 본산승격을 청원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 사찰이 화엄사와 금산사 등이었다. 명산에 자리한 명찰, 이를테면 가야산의 해인사, 금강산의 건봉사·유점사, 묘향산의 보현사 등은 대부분 본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화엄사는 지리산의 명찰임에도 불구하고 본산에서 제외되었다. 화엄사와 쌍계사, 천은사 등은 지리산이라는 같은 공간의 계과 의식을 공유하며 본산승격 운동을 펼쳤다.<sup>9)</sup>

8) 「華嚴寺의 本山됨을 듯고」, 『불교』 6, 불교사, 1924. 12, pp.7-10.

9) 한동민, 「일제강점기 華嚴寺의 本山昇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pp.165-177.

선암사의 말사 편입을 거부하며 강렬하게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암사로부터 화엄사의 주지로 임명된 김학산이 폭행치사 당하는 등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화엄사의 본산승격 운동은 절이 위치한 구례군민의 연명청원으로 이어졌다. 불교계의 논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민원과 총독부의 통치 문제로 연결되었다. 1924년 마침내 화엄사는 본산으로서 승격되었다. 본산승격 운동의 유일한 사례였다.

금산사는 전북의 대표적 명찰이었으나 위봉사의 말사로 확정되었다. 1930년대 초반 금산사는 본산승격 운동을 전개하였다.<sup>10)</sup> 이 과정에서 이미 본산이었던 위봉사와 보석사도 자신들의 본산 지위를 포기하고 금산사의 본산 승격을 추진하였다. 즉 전북 1본산주의(一本山主義)를 명분으로 제창하였으나 총독부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금산사 본산 신청이 좌절되자 세 사찰은 1937년 전주에 전북불교연합종무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기존의 두 본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산사가 주축이 되어 본산의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색한 방편이었다.

## 2. 불국사의 본산 승격 운동

사찰령의 시행에 따라 기림사는 본산이 되었고, 이에 따른 기림사본말사법은 1912년 12월에 인가되었다. 당시의 기림사본말사법은 다음과 같다.

10) 김광식, 「일제하 금산사의 寺格」,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p.141-151.



【사법】 기림사 본말사법. 대정 원년(1912) 12월 26일 인가.

【사승】 기림사는 신라 선덕왕 12년 계묘(643) 광유(光有)성인이 창건하였다.

【종지】 선교양종 대본산 기림사라 부른다.

【등규】 기림사 본말사는 서산대사【청허 휴정대사를 말한다】적전인 후손들로 주지를 삼는다.

【주직】 기림사 제1 부임 주지 김만호(金萬湖). 명치 44년(1911) 12월 7일 취직 인가. 제2 부임 주지 김만응(金萬應) 대정 4년(1915) 2월 15일 취직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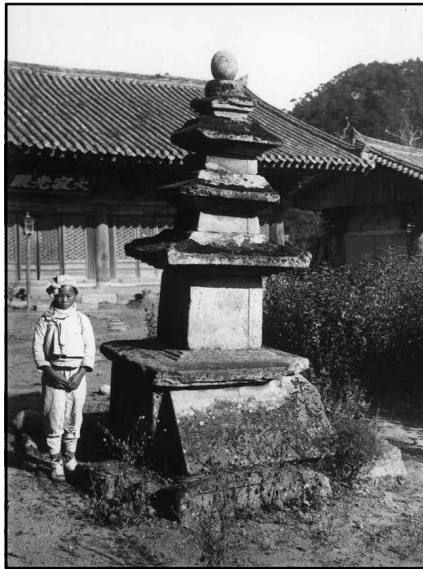
【사격】 본사 기림사의 가람 명칭 대적광전, 약사전, 응진전, 명부전, 화정당(華井堂), 진남루(鎭南樓), 상지전(上持殿), 하지전(下持殿), 설현당(說玄堂) 본사 기림사(祇林寺)의 【산내말사】 남적암(南寂庵), 감로암(甘露庵) 【산외말사】 보경사(寶鏡寺) 【수빈말사(首班末寺)】, 오어사(吾魚寺), 천곡사(泉谷寺), 거동사(巨洞寺), 서운암(瑞雲庵) 【이상 5개 절은 영일군(迎日郡)에 있다】, 청련사(靑蓮寺) 【영덕군(盈德郡)에 있다】, 석굴암(石窟庵), 보덕암(普德庵), 해봉사(海峯寺), 고석암(古石庵), 불국사(佛國寺), 분황사(芬皇寺), 백률사(栢栗寺), 은을암(隱乙庵) 【이상 8개 절은 경주군(慶州郡)에 있다】 기림사(祇林寺) 본말사는 합계 17개 사찰이다.

이 본말사법에 따르면 당시 기림사에는 대적광전, 약사전, 응진전, 명부전, 화정당, 진남루, 상지전, 하지전, 설현당 등의 전각이 있었다. 본산의 첫 주지는 김만호(金萬湖)였고, 1915년 2월부터는 김만응(金萬應)이 2대 주지를 맡았다. 산내말사는 2개사이고, 산외말사는 영일군의 보경사 등 5개사, 영덕군 1개사, 경주군의 불국사와 석굴암 등 8개사, 총 17개 사찰로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0본산의 지정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 기림사의 본산 지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굳이 지정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전각 등의 가람을 번듯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당시 대적광전과 약사전 등의 전각과 진남루, 그리고 화정당과 설

현당, 농정료 등의 요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림사는 19세기 중엽 이후 꾸준히 중수를 계속하며 가람을 유지해왔다. 이 시기의 간략한 중창 사실을 살펴보자. 1847년(헌종 13)에는 대종을 봉안하였다.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종이 있었으나 병자호란 때 압수당해 병장기로 사용되었다. 1862년(철종 13) 큰 화재가 발생하여 요사 113칸이 전소되었다. 이듬해 가을 중건을 마치고 1864년(고종 1)에 『기림사중건기』를 남겼다. 1878년(고종 15)에는 전각 일부를 중수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용장사에 있던 김시습의 영정을 옮겨 봉안하였다. 1892년(고종 29)에는 산령각을 중수하였다. 1899년에는 당시 경주 부윤이 지원하여 크게 중수하였다. 4월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900년 9월 불사를 마쳤다. 대적광전, 오불전, 삼향실, 산령각, 진남루, 설현당, 농정료 등의 중수가 완성되었다.<sup>11)</sup> 1911년 본산으로 지정될 당시 이때 중수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1920년대 기림사

11)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 15, 동국대 박물관 1998, pp.20-21.

한편 절에는 19세기 초부터 염불계와 갑계 등의 사찰계가 활동하면서 신앙활동과 보사(補寺)활동을 견인하였다.<sup>12)</sup> 염불계에는 2백 명이 넘는 승속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기림사가 지닌 이러한 인적, 물적 토대도 본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기림사와 달리 불국사는 1911년 당시 상당히 퇴락해 있었다. 신라시대 창건이후 불국사는 수많은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였다. 특히 18세기말에는 중수가 집중되어 웅장한 가람을 지닐 수 있었다.<sup>13)</sup> 1740년(영조 16) 동은(東隱)이 편찬한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가람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17개의 전각과 회랑, 극락전을 중심으로 11개의 전각, 비로전 일대에 3개, 관음전을 중심으로 7개의 문루(門樓)와 전각, 지장전을 중심으로 9개의 전각과 누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4)</sup>

그러나 19세기 들어 점차 사세가 기울면서 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805년(순조 5)의 비로전 중수 이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후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불국사를 조사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남겼는데 절의 퇴락한 상황이 그대로 전한다.<sup>15)</sup> 1905년에는 자하문에 연결된 회랑이 붕괴되었고, 1910년 이전에 무설전도 무너졌다.<sup>16)</sup>

1914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운교와 백운교 앞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계단과 석축이 무너져 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때는 사찰령에 의해 기림사가 본산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러한 지경에서 다보탑의 석사자나 비로전 앞의 부도 등이 일본인에 의해 반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도 승가교육에 대한 열의만은 포기하

12)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pp.79-85.

13)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2005, pp.3-5.

14) 『佛國寺古今創記』,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271-286.

15)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大學工大學術報告 6, 1902.

16)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앞의 책, pp.35-36.

지 않았다. 1913년 주지 송설우는 절에 불교강숙(佛敎講塾)을 설립하여 교육에 매진하였는데 모범이라 칭송받았다고 한다.<sup>17)</sup>

30본산의 지정에 대해 적지 않은 사찰의 저항과 승격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전각조차 지켜낼 수 없었던 불국사의 현실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신라문화의 찬란한 영광과 품격은 희미해져 갔다. 역사와 문화, 사격과 지리 등 그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불국사는 마땅히 본산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절의 쇠락은 계속되었다.



1914년 불국사

17) “慶州郡佛國寺住持 宋雪牛和尚은 寺務에 甚勤은 無論 又에 佛敎講塾을 當寺內에 設立호고 熱心敎育은 模範可作이러더라”『佛國講設』, 『불교진흥회월보』 17, 1913. 6, p.74.



1914년 불국사

1924년 일인들에 의해 대규모의 보수가 실시되었다. 주로 가람 전면의 다리와 담장 보수에 집중한 토목공사였다. 이때 다보탑이 완전 해체되었고, 이후 탑 안의 사리함 등이 모두 사라졌다. 일인들은 당시의 기록이나 사진을 일체 남기지 않아 이 보수공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가람의 상당 부분이 보수되었는데도 절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1932년 무렵 불국사를 찾은 조용명(1906~2003)의 회고에 절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좌원에서 나와 대구 화원에 있는 극락선원에 잠시 있다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경주 불국사, 백을사를 두루 돌아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지 못했다. 화원에서 나를 불량배로 밀고하였고 금당에서는 원주의 살림살이를 두고 볼 수 없었으며 불국사나 백을사에 와서는 절 형세를 보고 탄식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때 불국사로 말하면 주지 노장 한 분이 자기 가족과 어린 상좌 한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법당 안이

나 부처님 탁자는 먼지가 한 치는 쌓였었다. 세상에 부처님을 어찌 이렇게 하고 살까보냐 하는 비분이 치밀어 올라와 함께 갔던 백우스님과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3일인가 걸려서 범당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주지 노장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왔는데 백율사에서든 매 한가지였다.<sup>18)</sup>

1932년 불국사에는 노장과 가족, 어린 상좌만이 불국사에 있었다. 1924년 총독부의 중수 이후 이른바 관광지로서 각광받으며 각종 엽서, 안내책자 등에 불국사는 석굴암 등과 함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광과 답사, 고적탐승의 일환이었다. 1920년대 이후 각종 신문과 잡지 등에 등장하는 불국사에 대한 기사는 공통적으로 김대성의 창건 이야기, 다보탑과 석가탑에 집중되어 있었다. 화엄의 불국토를 신라땅에 구현하려 했던 김대성의 효심, 두 탑에 얽힌 전생과 현생의 이야기 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였다. 이처럼 절은 관광지로서 계속 인기가 높아졌지만 수행과 신앙의 도량이라는 본질에서는 계속 멀어졌다. 1932년 조용명이 본 불국사는 “부처님을 어찌 이렇게 하고 살까보냐 하는 비분이 치밀어 올라와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었다.

---

18) 조용명, 「老師의 雲水시절 ; 풋내기 호법행각의 시절」, 『佛光』 63, 1980. 1, pp.97-99.



사진엽서, 석가탑과 다보탑



사진엽서, 불국사 불상



불국사가 한국불교문화의 근원지라는 자부심을 드러낸 시기는 193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계기가 절의 본산승격 운동이었다. 사찰령의 본산 지정에 대한 반발은 지금까지 화엄사와 금산사, 흥국사 등의 사례가 주목받았으나, 불국사의 승격운동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신라불교의 정수를 간직하고 한국사찰의 대표적인 위상을 지닌 불국사는 기림사의 말사로 편입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1937년 불국사와 기림사 등은 경상도 당국에 본산승격을 신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慶州佛宗 大本山은 佛國寺가 適地

【慶州】경북 五大本산의 하나인 경주 기림사(慶州 紙林寺)는 지금부터 二十八년전 즉 명치 四十五年에 사찰령 반포 당시 조선 三十一대본산의 열(列)에 비록 참여는 되었을라도 그 당시의 특수사정으로 된 것인 바 大本산의 사찰적 지위로 보아서는 다 부적당한 감이 있어 교무행정의 통제적 불만과 불교운동 진전의 사무적 지장 등이 만코 또한 중대한 교통노가 극히 험악하여 여러가지 지장을 입히는 바 만아 단연 세계적 국보 불국사로 이 전함이 가하다는 이론이 대두하여 얼마전 분말사 승려 二十여명이 날인하고 주지급과 고적관계자가 도당국에 상세한 사유를 탄원하였으나 이도 별서 해를 박구워 것으로 이 운동의 적극화를 위하여 유력자의 날인을 더 첨부키로 하고 대표위원이 또다시 도당국에 탄원키로 되었다.

이는 비단 불교상 문제만이 아니라 ‘고적 경주’의 체면으로 보나 역사지대의 고적애호 정신으로 보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단연 ‘불국사’가 적지란 이론이 통일되어 사회측으로 경주박물관과장 대관김태랑(大阪金太郎)씨 등이 전 행동에 참가키로 되어 속속히 운동의 실행방침에 매진케 되었다. 세인이 주지하는 바와같이 경주의 불국사는 조선불교문화의 근원지의 대명찰로서 신라 법흥왕(法興王) 二十七年(庚申)의 개산(開山)으로 거금 一千四百년전 고찰 지위에 있고 현본산 기림사에 비하여 一百四년이 더 오래일 뿐 아니라 그 기교의 치밀한 구성, 건축적 수법으로 이름높은 다보탑 석가탑 등과 또한 좀 격리되어 있으나 신라문화의 대표적 유물이요, 극동(極東) 三대 미술의 하나인 석굴암(石窟庵)의 석존이 안치되어 있어 각 방면 학자를 위시한 지식층의 내인 거객이 빈번하여 앞으로 현지 불교발전을 위해서 단연



조흘뿐 아니라 현재본산은 교통노가 지극히 불편하여 경주읍에서 七리 터에 있어 그 도로의 기구(騎驅) 태산과 험곡이 중첩 또한 인마(人馬)의 발섭(跋涉) 곤란과 함께 차량의 왕래가 불능하고 나아가 우편물을 十리허 촌락에 방치해 버리는 현상으로 각종의 불편이 만흔 것이 주원인 듯하다.

이 운동의 실제위원은 다음과 같다.

大本山住持 金敬林, 佛國寺住持 崔翊文, 博物分館長 大阪金太郎<sup>19)</sup>

불국사의 본산승격 청원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내용은 대략 기림사의 본산 자격이 부적절하므로 본산을 불국사로 옮겨 달라는 요청이다. 먼저 기림사의 본산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이 부적당하다는 설명을 보자. 기림사는 본산으로서 교무행정을 통제하는데 말사들의 불만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불교운동을 진전하는 사무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통로가 험하고 불편하여 우편물조차 절에 전달되지 못하고 십리 밖 촌락에 방치된다는 설명이다.<sup>20)</sup>

다음은 불국사의 본산 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불국사는 조선 불교문화의 근원지, 대명찰이다.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어 기림사보다 창건시기가 104년이 앞선다. 가람상으로 보면 치밀한 기교와 구성, 건축적 수법을 지닌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 또한 극동 3대 미술의 하나인 석굴암이 가까이 있다. 이에 내방객이 빈번하므로 앞으로의 불교발전에 단연 좋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유와 배경에서 얼마전(1937년 하반기로 추정) 본말사 승려 20여 명이 연명하고 주지들과 경주 고적 관계자들이 도당국에 상세한 탄

19) <동아일보> 1938. 1. 24.

20) 기림사의 위치는 당시 우체국에서 배달을 기피할 정도로 불편하였다. “우편에 비난 서로 배달 거절, [경주] 경주군 양북면 호암리에 있는大本山 기림사에는 요사이 감포우편소로부터 기림사는 감포 우편 구내가 아님으로 우편을 배달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경주국에서도 우편배달을 거절함으로 양 우편국소의 중간에 끼여 구역이 분명치 못한 동 기림사는 만일 양 우편국소에서 금후 우편배달을 거절하면 일체통신이 두절되리라하여 불평이 자자하다 한다.” <동아일보> 1932. 1. 22.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응답이 없자 1938년 1월 승격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유력자의 서명을 추가,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승격운동에는 본산 기림사 주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경주박물관 관장도 동참하였고, 운동의 실현에 다양하게 매진하였다고 한다.

이 기사 외에 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실현 방침’이 무엇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37년 무렵에는 본산으로서의 위상에 필요한 인적(수행자), 물적(가람 중수) 토대 등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자신감을 회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먼저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사리탑의 귀환이다.

#### 경주 불국사 석탑 삼십년만에 고국으로

[동경지국특신] 지금으로부터 약 삼십년에 경주 불국사에 잇는 석조 사리탑은 어떠한 자의 절취로 말미암아 그 종적을 몰랐었는데 얼마전에 동경에 잇는 長尾欽彌씨의 소장한 古物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씨는 그 사리탑이 우리 경주 불국사의 소유인 것을 알게되자 곧 경주로 奉還할 결심을 하고 그 동안 관계 각방면을 통하여 그 수속을 마친 후 지난 21일 오후 1시에 東京芝區 増上寺 대법당안에 前記 사리탑을 봉안하고 송별공양회를 열었다는 바, 그 회에는 저명인사가 많이 參集하였섯고 그 탑은 즉시 경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데 이 탑은 불국사 대웅전 뒤 비로전 앞뜰 중앙에서 잇는 것으로 높이 6척의 화강석조요 조각의 정교한 것은 실로 둘도 없는 보배라고 한다.<sup>21)</sup>

강점 초기에 도난된 사리탑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나가오 긴야(長尾欽彌)의 선의로 불국사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sup>22)</sup> 사리탑이 돌아오자

21) <동아일보> 1933. 7. 24.

22) 일인들은 1905년경에 당시 주지가 사리탑을 매각했다고 설명하나 근거가 없다. 『佛國寺と石窟庵』, 조선총독부, 1938, pp.83-85. 한편 이 사리탑에서 출토된 經箱(경

1933년 9월 경찬법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sup>23)</sup> 또한 1935년에는 불국사 전체가 국가보물로 지정되는 등 절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다.<sup>24)</sup> 이해 5월에는 사리탑각 낙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1933년 사리탑 귀환

함 2점과 경통 1점)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목록>에 '경북 경주 불국사 사리탑 경상'이라는 1933년 촬영의 유리원판 사진이 있다. (원판번호 NO無67-5.) 당시 소장자는 나가오 긴야라고 하였다.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40418> 즉 나가오는 경상을 돌려주지 않았다.

23) 「경주 불국사의 사리귀향 공양」, <동아일보> 1933. 9. 20.

24) 「고적으로 보존될 독립문과 보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동아일보> 1935. 10. 27.

불국사의 사리탑각, 석굴암까지 불바다를 이룬다.

[경주] 來 10일(음 4월 8일)에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에서는 釋尊祭를 거행한다하며 이 기회로 오래전에 동경 長尾氏가 기증한 사리탑각에 낙성식도 아울러 성대이 거행하게 되리라는데 이날 밤에는 불국사로부터 석굴암까지 등을 달어 金栗, 紅霞의 바다를 일울터이며 여러 가지 驪興으로 대성황을 예상하는데 식순은 左記와 같다.<sup>25)</sup>

1936년에는 낙후된 가람을 중수하는데 국가의 보조금 2,700원을 받기도 하였다.<sup>26)</sup> 한편 이 해에도 석존제(釋尊祭)를 거행하는 등 활발한 사회적, 불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7)</sup> 이러한 일들은 절의 사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한 자신감으로 본산승격을 청원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승격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이 시기는 사찰령을 제정, 운영한지 26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지배가 공고화되고 있었으므로 굳이 불교정책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불국사는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기림사의 말사로 남아 있었다.

### III. 가람의 중건과 본산시대

#### 1. 본산시대의 개막과 사격 회복

광복 이후 불교계는 오랫동안 한국불교의 발전을 억압해온 사찰령을 일소하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모색하였다. 1945년 한국불교를 통할하는 종단

25) <매일신보> 1935. 5. 4.

26) 「경주불국사 國庫補助 바더 수리 이천칠백원으로 근간 착수」, <매일신보> 1936. 5. 6.

27) 「경주 불국사 釋尊祭 成황」, <매일신보> 1936. 6. 2.

으로서 조선불교중앙총무원(교정 박한영, 원장 김법린)을 출범하였다. 1946년 2월 당시 전체 사찰은 1,296사, 승려는 7,626명이었다.<sup>28)</sup> 지역별로 각 도에 교무원을 설립하고 총 13교구의 교무원을 두었다. 경기교무원, 전남교무원, 전북교무원 등과 같은 명칭이었다. 불국사가 속한 경북교무원은 대구 대안사에 본부를 두고 162개 사찰, 863명의 승려를 관할하였다. 당시 원장은 이해봉(李慧峰), 총무국장은 박도수(朴度洙), 교무국장은 서재균(徐在均), 재무국장은 박성하(朴性夏) 등이 맡았다.<sup>29)</sup> 1951년에는 ‘불교경북 교구교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교무원장은 박성하, 총무국장은 박춘교, 교무국장은 서만준(徐萬俊), 감찰부장은 김용학(金龍鶴), 재무부장은 백덕실(白德實), 사회국장은 김달생(金達生) 등이 역임하였다.

1959년 불교정화의 과정에서 비구측은 24개의 수사찰(首寺刹)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불국사가 포함되면서 절은 비로소 경북을 대표하는 수사찰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960년 1월 수사(首寺) 불국사의 주지는 강석주(姜昔珠)였다가<sup>30)</sup> 곧바로 2월 25일에는 김지효(金智曉)로 교체되었다.<sup>31)</sup> 1961년 초에는 능가(能嘉, 1923~)가 주지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람 정비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자세한 사정이 능가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한다.

내가 불국사 주지로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5.16이 났어. 내가 주지로 가기 전에는 대월, 석주, 지월스님이 주지를 거쳐 갔어. 그런데 나는 해방 당시에는 경주 교육계에 있었으니, 경주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하고는 다 알고,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경주 지역 유지들이 자꾸 애매한 스님들이 주지로 자꾸 다녀가니 불국사 주지로 나를 보내달라는 여론이 일어서 내가 가게 된 것이지. 사실 나는 주지로 가기에는 승남이라는 면에서 자격이 안돼.

하여간 주지로 가 보니, 청운교, 백운교 그 다리 앞까지 바로 1미터까지 상

28) 「조선불교기관 中央職司一覽」, 『신생』 4월호(제2집), 1946. 4, 앞표지 1면.

29) 『불교』 1947. 1. p.4.

30) 「광고」, <대한불교> 1960. 1. 1.

31) 「首寺住持 發令名單」, <대한불교> 1960. 3. 1.

점들이 꼭 들어 차 있었어. 그것이 거의 60채 되고, 세대로는 80세대가 되었지. 그것을 뜯어내야만 불국사가 정화가 될터인데, 어떻게 해 볼 방법이 막막했어.

그런데 그때 마침 5.16혁명이 나서 나에게는 활로가 되었지. 내가 5.16 이전에 박정희를 알고 지냈지. 내가 범어사 총무를 할 때, 박정희가 부산의 군 수사령부 책임자로 있었는데 가끔 범어사에를 올라 왔어.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5.16이 났으니 이 양반을 활용해서 불국사 정화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서울로 올라왔지. 그래서는 묘안을 짜서 마침내 박정희를 혁명 이튿날인가, 살벌한 판에 만나게 되었지. 만나서는 지금과 같은 때에 불국사 정화를 못하면 영원히 정화를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손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요지만을 말했지. 그랬더니 박정희는 그래야죠 하면서 5사단장인 민장군을 부를 터이니, 그에게 주문을 해서 처리하라고 그러더구만. 당시에는 그 사람이 경북의 위수사령관이기에 그가 많은 권한이 있었어.

그래서 그 민장군을 만났더니, 민장군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되느냐고 해. 그래서 내가 공병대 2개 중대만 빌려 달라고 하였어. 그 후에는 경주로 와서, 경주 경찰서장을 만나서 작전을 세웠지. 그래 시청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을 잡고, 그 후에는 그 집에 있는 가사도구를 밖으로 내놓고 100미터 떨어진 곳에 세대별로 무더기로 모아 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대별로 그 담당을 정하였지. 그리고서는 시작하였어. 그러니깐 불과 한 시간도 안되어서 그 집, 상점들을 다 철거하였어. 그러니깐 주민들은 살기가 등등할까 아닌가. 별안간 약~ 하는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옆을 보니 주민 한 명이 도끼를 들고 내 옆에 있는 경찰서장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야. 그 경찰서장은 군인이니, 호위병이 경찰서장을 왈각 밀어서 다행히 빛나가, 어깨에 도끼가 찍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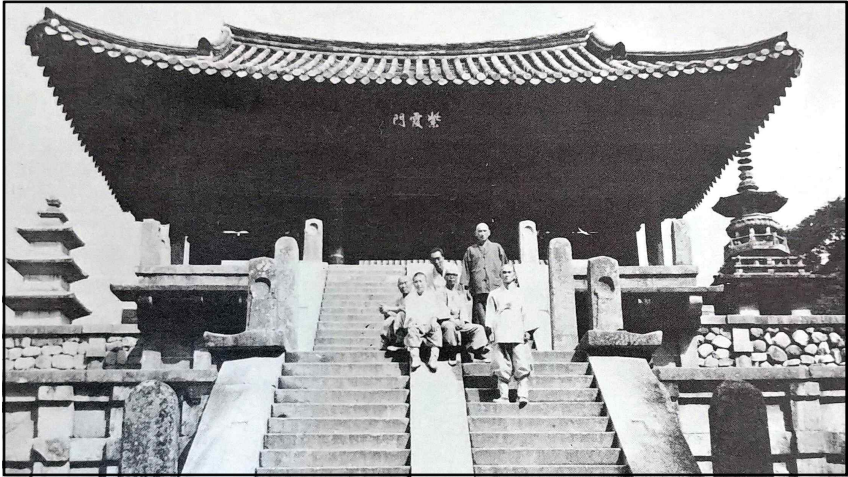
그러니 내가 거기에, 절에 있을 수가 없어. 주민들의 나를 때려 죽인다는 말이 들려 오니 절에 들어 갈 수가 없어. 그래 절에 나와서 경주에 숨어서 지휘를 하였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수습을 해야 하겠다고 하였지. 그런데 수습에는 돈이 필요해. 그래 1주일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박정희를 찾아 갔어. 그렇게 또 찾아 갔더니 박정희는 흥미를 갖더라구. 어떻게 되었냐구 하면서. 그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지어 주고, 상점들 지어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지. 그 때에 보니 매점, 여관, 술집을 전

부 지어 주려면 대충 계산을 해 보니 그 때 돈 5천만원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박정희에게 1억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5천을 가져 가시오 하더라구. 그게 많은 돈이여. 그래 5천을 얻어다가 주민들의 상점을 재건하였어. 길을 닦고, 절 입구의 마당도 놓고. 그때 해준 것이 매점이 7·8개, 여관이 두 채 음식점 몇 채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왔어. 그렇게 20일을 하였더니 불국사 주지를, 그 다음부터는 능가스님을 평생 동안 주지스님으로 해 달라는 연관장이 돌아왔어. 내가 그래서 주민들의 은인이 되었다고. 이런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었어.<sup>32)</sup>

1960년대 초 청운교, 백운교 앞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음식점과 상점, 여관 등이 60채나 밀집되어 있었다고 한다. 1910년대부터 경주는 고적탐방의 명승지로서 각광을 받았다.<sup>33)</sup>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주 고적의 핵심 명소였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자 상인들이 무단으로 경내에 상업시설을 세웠던 것이다. 능가는 당시 박정희사령관의 도움으로 가람을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김광식,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71-73.

33) 경주가 고적탐방의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918년 ‘불국사역’이 개설되면서 부터이다.



1960년대 불국사 스님들

능가는 가람을 정비하는 한편 불국사를 수행과 강학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절에 설봉의 『벽암록』 강좌를 개설하여 수행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선어록 강의] 범어사에서 하였지만, 내가 불국사 주지를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하였어. 그거는 범어사 돈으로 내가 한거야. 내가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정화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가는 데에도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 말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병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지. 정화의 일선에 관여를 하다 보니, 서울을 자주 올라 가고, 내려오다 보니 자연 전국의 승려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승려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지. 나부터도 중이 된 처음에는 뭐가 먼지 몰랐어. 그러니 나도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내었지. 그리고 정화불사만 가지고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파악했어. 불국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내 생각은 우리 스님[동산스님]을 모실까, 설봉스님을 모실까, 그때에는 성철스님도 생각은 해보았지. 여러 생각은 하였지만 안되겠다 싶어 설봉스님을 모시고 시작하였지. 그래서 그 강의한 것을 정리, 보완하여 책으로도 냈지. 그때에 전국의



승려들이 불국사에 안 온 사람이 없어.<sup>34)</sup>

정화운동의 외증에서 당시 승려들의 수준을 절감한 능가는 선수행이 교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선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벽암록』 강의를 개설하였더니 전국의 승려들이 불국사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 강의에 참여했던 각원 선과(覺園善果)의 자세한 증언이 있다.

『벽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로 『벽암록』 강의를 하고 책을 낸 이야기를 해야겠다.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능가스님과 선방 수좌로 있다가 범어사 교무를 맡았던 진상스님과 광덕스님, 이 세 분은 삼총사로 불릴 만큼 서로 절친한 도반이었다. 그 무렵 범어사 강사였던 성호스님이 『벽암록』을 현토하여 강원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자 선방 대중들까지 모두 강원으로 몰려가서 강의를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셨던 조실스님이 선방에 와 보니 텅 빈 방이었다. 그 다음날 큰방 공양시간에 대중을 대표하여 내가 조실스님께 죽비 경책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벽암록』 강의는 중도에 끝나고 말았다. 그때 조실스님께서 대중을 염려하여 하신 말씀은 이러했다.

“나토 여태까지 『벽암록』을 보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선방에서 오랜 세월 지냈으면서도 『벽암록』을 보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엇그제 선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벽암록』을 봐서 대관절 무슨 이득이 있겠나.”

참선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화두정진은 하지 않고 『벽암록』을 본다면 자칫 알음알이에 떨어지거나 문자에 휘둘릴 것을 염려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새겨들었다.(중략) 고인의 노파심절이 이렇게 지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벽암록』 강설을 실천했던 것은 세 분 스님들의 선에 대한 특별한 이해 때문이었다. 그것은 20세기 문명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기아·질병·전쟁·소외 등등)를 선이라는 획기적인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까닭이다.

34)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앞의 책, pp.70-71.

그래서 1961년 동안거 때, 불국사에서 『벽암록』 강설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조실스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모든 동참 대중들은 불국사 선방에서 철저히 정진하도록 규칙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 방을 짰다. 즉 참선 정진의 토대 위에서 하루 두 차례씩 『벽암록』 강설을 열었던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조실스님께서 이르신 경책의 힘이었다. 조실스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던 삼중사 스님들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한국 초유의 『벽암록』 강의가 그렇게 막이 올랐다. 장소가 불국사였던 것은 능가스님이 주지인 때문이고, 진상스님은 대중을 모았고 광덕스님은 강사인 설봉큰스님을 모시는 일과 교재를 책으로 엮는 일 등, 기타 여러 일을 맡았다.(중략) 나는 그때, 범어사 강원 강사이신 고봉스님께 능엄경을 듣다가 흥원, 선래, 정달 등 도반들과 함께 『벽암록』 살림에 동참하기 위해 불국사로 향했다. 내 나이 불과 스물 셋 무렵이었다. 『벽암록』 강의는 하루에 두 차례씩 꼬박 3개월이 걸렸으니, 1961년 동안거는 그렇게 뜨겁고 숨가쁘게 지나갔다. 당시 동참 대중들은 모두 불국사 선방에 방부를 들어서 소임을 정하여 대중생활을 여법하게 했고, 참선정진에 소홀함이 없이 하루 두 차례, 오전·오후에 열리는 강의에 참석하는 빈틈없는 일과가 결연히 진행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벽암록』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책 발간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강의도 처음이었으며 현토도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종문 제1서(宗門第一書)라고 칭송하는 『벽암록』 살림이 불국사에서 한겨울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판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어찌면 제불회상에 있는 듯 넘쳐 오르는 범열로 잠을 덜 자도 피곤하지도 않았고 졸립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든 도인이 되겠다는 응골찬 결의로 순식간에 석 달을 보냈다.<sup>35)</sup>

35) 각원선과, 「범어사에서 광덕 사형님과 보낸 시절」, 『광덕스님시봉일기』 4, 도피안사, 2004, 159-164.



1961년 동안거 해제, 『벽암록』 강의를 마치고

젊은 수행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가득 찬 한겨울의 불국사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종단은 갈등과 분규가 그치지 않았으나 이처럼 진리에 대한 열망과 수행가풍이야말로 한국불교의 굳건한 지력이다.

이듬해 1962년 4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였다. 종헌을 제정, 반포하고 운영진 인선, 25교구본사의 확정 등을 통해 종단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통합종단의 출범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계기였다.<sup>36)</sup> 종단의 출범으로 불국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25교구 중의 하나로 정식 인가받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3년 전인 1959년 절은 24개의 수사찰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에 도량을 정비하고 『벽암록』 강의를 개설하는 등 안팎으로 두루 본사의 사격을 지니기에 충분하였다.

36)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1, pp.220-224.

## 2. 가람의 중건과 복원



1969년 발굴 모습

불국사의 현대사에서 1969년에 시작된 가람의 중창은 발전의 중요한 계기였다. 절에서도 이때의 복원을 중시하여 현대사 부분에 명시하였다. 1976년 중창의 자세한 시말을 정리한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1969년 5월 12일에 박정희대통령이 불국사 복원을 지시하였다. 28일에는 문화공보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복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사단법인 불국사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고층 위원회를 두고, 재원은 경제인들의 시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11월 14일 기공식을 거행하여 본격적인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복원이 한창이던 1971년 7월에는 경주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불국사도 이 계획에 포함되었다. 1972년 2월과 6월 박대통령이 불국사를 방문하여 단청을 좀 더 은은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1973년 7월 3일 마침내 모든 복원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4년이 넘는 대복원불사가 완료되었다. 주춧돌과 빈터만 남아 있던 무절전·관음전·비로전·경루·회랑 등이 복원되었고, 대웅전·극락전·범영루·자하문 등이 새롭

게 단장되었다.

이와 같은 복원공사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불국사가 신라왕실의 힘으로 완성된 국가의 사찰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복원의 배경에는 당시의 시대적 사명이 내재되어 있었다.

불국사 복원의 큰 의의는 첫째,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사업이고, 둘째 호국하는 신앙정신의 계승이며 셋째 전통있는 민족의 슬기로운 문화를 선양하고 보급하는 터전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불국사에서 처음으로 신라 가람의 복원된 원형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으로 자주적 민족정신의 구현 도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을 위시하여 백운교, 청운교, 칠보교 등이 남아 있던 석조물과 신라 금동불상 등이 복원가람과 함께 규모있고 조화있게 본래의 의도에 따라 그 가치가 재생되어 학술적 의의를 더하게 되었고, 우리 문화를 자랑하여 민족의 긍지를 높이면서 신앙의 깊은 정신을 보급하고 격조 높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게 된 것이다.<sup>37)</sup>

복원의 의의를 밝힌 내용인데 이 길지 않은 문장 가운데, ‘민족’이 자주 등장하며 ‘호국’과 ‘긍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불국사는 ‘민족정신의 구현 도량’, ‘호국하는 도량’,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도량’이라는 인식이다. 1960~70년대 국가의 기초가 절의 복원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불국사와 석굴암이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기초가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 3. 수행도량의 수립과 월산선사

불국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수학여행과 답사이다. 찬란한 신라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관광산업이 크게 일

37)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앞의 책, p.17.

어나 경주에 이르는 철도와 도로가 확충되면서 이 관광의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절이 지닌 이러한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보다 잘 전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절은 출가수행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장소이다. 즉 수행과 전법을 행하는 도량이다. 이 근본 보다 관광지로서의 부차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sup>38)</sup>

1973년 가람의 중창을 기반으로 수행과 전법도량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4년 6월 월산선사(1913~1997)가 주지로 부임하여<sup>39)</sup> 중창불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수행도량으로서의 전통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선사는 1974년 10월 18~20일까지 제13회 신라문화제의 일환으로 호국대법회를 개설하였다.

#### 신라 얼 되찾아야

한 마리 鐵獅子가 입을 크게 벌리고 說是非하되 신라문화는 어떻고 오늘의 문화는 어떠하다 하나라. 옛 신라문화는 돌과 흙이요, 오늘의 문화는 기름과 전기와 시멘트입니다.自古로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국민은 잘살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의 국민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에 다시 민족문화가 중흥되고 우리 국민이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총화단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는 성실한 근검 절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국력 발전을 위해서는 욕구불만,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등 온갖 분열을 조성하는 사회악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하고 사치와 낭비 등 갖은 이기주의적 탐욕은 慈悲喜捨의 四無量心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 신라인들은 개인의 虛慾과 일체의 사회적 부조리를 불법을 통한 자비와 슬기로써 總和시켜 그야말로 신라국토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더할 나위없는 안락한 삶을 누렸으나,

38) 「佛國寺의 싸움 蔡주지의 법옷 벗기고 사퇴강요」, <경향신문> 1968. 11. 8.

39) 이보다 앞선 1973년 8월 선사는 수덕사 전월사 토굴에 있다가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오늘날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단합된 국가민족의 얼을 보여 주었듯이 이를 오늘에 본받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보다 평안하고 강건한 국토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心生種種法生하고 心滅種種法滅이니라.

頌해 가로되, 山色은 古今同이요, 人心은 朝夕變이니라.<sup>40)</sup>

개회설법에서 선사는 민족문화의 중흥과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자비회사의 사무량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불국사가 술선, 실천하기 위해 승가학원과 선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달(8월) 31일 주지스님을 비롯 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국사승가학원 개원식을 가졌다. 강사는 法空스님. 이날 식은 총무국장 月性스님의 개식사와 교무국장 性陀스님의 강사 약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범공스님은 인사에서 “항시 도제양성에 염원이 되어 오던 바 본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중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지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말사에 1인 이상 학인을 의무적으로 강원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그간 강원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국사 말사는 50여 개로 알려지고 있어 강원생을 적어도 60~70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sup>41)</sup>

선사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

40) <대한불교> 1974. 11. 10.

41) <대한불교> 1975. 9. 7.

기 위해 개원했다.”고 하였다. 선사는 1969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바 있으므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도제양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하였다. 선사는 약속대로 1976년 5월 불국선원을 신축하였다.<sup>42)</sup>

선사는 일찍이 은사 금오선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에 매진하였고 1948년에는 봉암사결사에서 치열한 구도에 진력하였다. 1969년 9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정화불사와 종단 유신안 등의 어지러운 현실을 점차 안정시켰다.<sup>43)</sup> 이와 같이 이(理)와 사(事)에 두루 형통하여 불국사의 중흥을 일궈냈던 것이다. 법어록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선사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1974년 불국사 주지에 취임하셔서 대표적인 관광사찰에 불국선원과 강원을 개창하시어 수행풍토를 진작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찰들이 수행도량의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불교를 안타까워 하시는 큰스님의 원력이라 할 것이다. 사변(事邊)의 중무수행과 가람수호, 대중외호에도 대인의 풍모가 약여(躍如)하셔서 큰스님의 지도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극한 신심과 환희심을 내었으니 큰스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넓은 용인지심(容人之心)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할 것이다.<sup>44)</sup>

42) 『선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2000, p.494.

43)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법보신문> 2018. 6. 13.

44) 『월산선사법어록』, 월산문도회, 1999, p.366.





1976년 제1회 강원졸업 기념

#### IV. 맺음말

불국사는 신라 창건 당시부터 호국사찰이라는 사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대성의 발원에서 시작하여 왕실이 창건을 완성하면서부터 이미 국가의 호국사찰이라는 성격이 규정되었다. 창건 당시의 절이름은 ‘화엄불국사’였다.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신라땅에 구현하려는 염원을 담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나라(佛國)’라는 이름은 현실의 국가 신라와 동일시되었다. 그 결과 8세기 국가적 차원의 문화와 예술, 역량이 총결집되어 마침내 ‘부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호국사찰로서의 사격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시대에 따라 화엄종과 유가종 등 소속 종단은 변화하였지만 창건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역불의 기조에서도 중건과 보수가 이어진 배경에는 이러한 호국사찰로서의 사격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사세가 기울고 가람이 퇴락하면서 절의 사격은 희미해졌다. 근현대 들어 일제의 사찰령하에서 30본산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절의 쇠락이었다. 20세기 초 절은 황폐한 무주공산의 지경이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사격은 무너진 가람과 함께 사라졌다. 심지어 본산 기림사 체재에서 수반말사(首班末寺)도 아닌 일반 말사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일본 인들은 조사와 중수를 빌미로 절의 귀중한 성보를 편취해갔다. 다보탑의 석사자가 사라지고 그 안의 봉안물을 모두 훔쳐갔다. 종류와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불국사가 사격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때는 1938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본산 기림사와 소속 말사, 그리고 경주박물관장 등의 지역인사들이 힘을 모아 본산승격 청원을 개시하였다. 1936년 거액의 국고가 지원되어 가람을 중수하였고, 석존제를 거행하는 등 활발한 사회적, 불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관광지로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가람의 중수와 범회 활동을 통한 자신감으로 본산승격을 청원하였다. 비록 본산승격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절의 위상과 사격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1959년 불교정화의 과정에서 비구측은 24개의 수사찰을 확보하였다. 이때 불국사는 수사찰이 되어 비로소 경북을 대표하는 사찰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1교구 본산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후 1969~1973년에 이르는 4년간의 대북원불사를 완성하여 발전의 터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토대를 바탕으로 강원과 선원을 설립하여 도제양성과 수행도량으로서의 본모습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 『월산선사법어록』, 월산문도회, 1999.
-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1.
- 각원선과, 「범어사에서 광덕 사형님과 보낸 시절」, 『광덕스님시봉일기』 4, 도  
피안사, 2004.
-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大學工大學術報告 6, 1902.
- 김광식, 「일제하 금산사의 寺格」,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이영재, 「朝鮮佛教革新論」, 『조선일보』 1922. 12. 11.
- 신상완, 「日本이 韓國佛敎에 對한 壓迫」, 『韓國獨立運動史 資料4 臨政篇 IV』,  
국사편찬위원회, 1974.
-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  
연구』 7, 2005.
- 조용명, 「老師의 雲水시절 ; 鬻내기 호법행각의 시절」, 『佛光』 63, 1980.
- 한동민, 「일제강점기 華嚴寺의 本山昇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한  
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 15, 동국대 박물관, 1998.
- \_\_\_\_\_, 「한국 근대불교의 형성과 일본, 일본불교」, 『한국사상과 문화』 4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 Abstract

### The Bulguksa Temple's statu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an, Sang-gil

(Assistant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The research on Bulguksa was focused on the ancient founding period. The article tries to talk about the history and status of Bulguksa since modern times, which has not been noted. In the paper, studied the efforts and history of monks from the period of 1910 when the country was taken away to the restoration of temple in the 1970s, and from the time when it was reborn as a temple propagation.

Bulguksa Temple started with the status of state protecting temple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However, after the 19th century, the temple gradually declined due to its dilapidated buildings and fewer monks. The temple's fall was the reason why it was not designated as The Thirty district head temple. It was even arranged from the District Head Temple Girimsa system to the ordinary branch temple, not the head branch temple. It was around 1938 when Bulguksa began to regain its status as it's the District Head Temple.

Girimsa and the local people joined forces to initiate a promotion of petition to become the head temple. In 1936, a large amount of state funds were provided to restore a temple, it was very popular as a tourist site. In 1959, Bulguksa was designated as the Main Temple officially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temple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1962, it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the head temples of the 11th dioces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fterwards, the temple completed four years of restoration from 1969 to 1973. Based on this external foundation, a

sutra school and zen center were established to prepare the original form of Buddhist monk education and practice zen.

Key words

Bulguksa Temple, Girimsa Temple, The Thirty District Head Temple, The Head Temple System, Zen master Wolsan, President Park Jeonghui, The Temple Ordinance, Sarira stupa of Bulguksa Temple